

‘인기몰이’ 김수현 작가 돌아왔다

주말극 ‘그래, 그런거야’ 18명 호화배역 출연

1인가구가 늘고 3~4인 가족이 보편화된 요즘 유명극작가 김수현(73)씨가 대가족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드라마의 대가 김수현 작가가 60부작 주말극 ‘그래, 그런거야’로 돌아왔다. 이순재(81)를 비롯해 강부자(75), 노주현(70), 송승환(59), 양희경(62), 김해숙(61) 등 김수현 사단 연기자들부터 조한선(35), 남규리(31), 서지혜(32), 신소율(31), 왕지혜(31), 윤소이(31), 그리고 신예 정해인(28) 등 2030대 연기자까지 주요 배역이 무려 18명이다.

이들이 참석한 제작발표회는 하이라이트 영상 촬영과 출연진 사진 촬영에만 45분이 소요됐다.

작품의 미덕으로는 “청년실업”을 꼽았다. “늘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막내아들을 통해서 취업에 고통 받는 아픔을 살짝 넣었다.”

이순재는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가족이 다 포용된 우리들의 이야기다. 온 가족이 유쾌한 마음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전했다.

강부자는 세대간 공존 방법이 다 들어있다고 했다. “고부갈등이 없다. 종졸 시어머니지만 신문 열심히 읽고, 유식하고 슬기롭다. 온 가족이 손주손녀에게 어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들어왔다. 우리끼리 하면서 너무 재미있다. 시청률 58.9%를 찍어 60%가 나올 것이다.”

‘그래, 그런거야’는 셋째 며느리지만 부



가족드라마의 대가 김수현 작가 60부작 주말극 ‘그래, 그런거야’ 이순재·강부자·송승환 등 김수현 사단 연기자들이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자신 역시 세 초보 어른의 엄마인 혜경(김해숙)의 내레이션을 함께 전개한다. 극중 혜경의 시부모는 이순재와 강부자 부부다. 그들의 장남은 노주현, 차남은 송승환, 삼남은 홍요섭(61)이 연기한다. 양희경은 강부자의 이복 여동생 역이다.

자영업자인 노주현은 아들과 아내를 사고로 잃고 과부가 된 며느리 서지혜와 살고 있다. 학원교사인 서지혜의 극중 엄마

는 카페를 운영하는 임예진(56), 배우 지망생인 남규리는 여동생이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차남 송승환은 건강 증 심한 정재순(68)과 부부이며 늦둥이 딸로 간호사 신소율을 뒀다. 김정란(45)은 송승환이 운영하는 일식당의 유능한 종업원이다. 삼남인 내과의 홍요섭은 간호사 출신 전업주부 김해숙과 부부다. 출판사에 다니는 윤소이 내과의 조한선, 취업준비생 정해인 1남2녀를 뒀다. 윤소이는 광고

회사 감독 김영훈(38)과 결혼한 상대고 조한선은 부잣집 외동딸 왕지혜와 여러 차례 헤어졌다 만난 연인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현 작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기자 모두 김 작가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그래, 그런거야’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45분에 방송되고 있다.

/안진수기자

“방황은 꿈찾아 노력하는 시간” 안정환 희망의 메시지 화제

축구스타 안정환이 ‘정춘FC’ 선수들에게 전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KBS 2TV 특집 ‘정춘FC 형그라일레브-연장전’ 녹화에서 안정환과 이을용 그리고 정춘FC 선수들이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모인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촬영 도중 한 선수가 “아직 팀을 찾지 못 한 채 방황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안정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안정환은 “너희는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서를 내고 스펙을 쌓고 면접을 보는 또래 취업 준비생들처럼 각자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어떻게 방황이나, 방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민근기자



AOA 유닛 크림 신곡 ‘질투나오 베이비’ 공개

그룹 ‘AOA’의 3인 유닛 ‘AOA 크림(유나·혜정·찬미)이 12일 신곡 ‘질투나오 베이비’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엠넷의 실시간차트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멜론 등 주요 음원사이트의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작곡팀 ‘블랙아이드 필름’이 작업한 곡으로 연인이 다른 이성에게 합는과는 모습을 보고 느낀 질투심을 핑키한 사운드로 풀어냈다.

AOA크림은 밴드 유닛인 ‘AOA 블랙’, 댄스 유닛인 ‘AOA 화이트’ 이후 선보이는 AOA의 새 유닛이다.

보컬을 담당하는 유나와 혜정, 랩을 맡은 찬미가 등장했다. 특히 세 멤버의 우월한 신체조건을 부각시킨 콘셉트로 관심을 끌고 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미니 웨딩드레스, 요술봉 등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모습을 따 온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AOA크림은 12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다.

/안진수기자

시애틀 입단 이대호, 가장 흥미로운 백업 후보 꼽아



지역매체 시애틀타임스 지난 시즌 ‘괴물 같은 시즌을 보냈다’ 표현

미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한 이대호(34)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시애틀 지역매체인 시애틀타임스는 12일(한국시간) ‘주간 1루수 아담 린드의 1루수 파트너 찾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최근 몇년간 시애틀은 1루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서 지난 시즌을 마치고 유망주 3명을 주고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데려온 아담 린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1루수 자리는 거포형 타자의 주 포지션이지만 최근 시애틀 1루수들은 모두 생산성이 낮았다.

지난해 1루수 자리에서는 홈런 24개와 77타점밖에 나오지 않았다.

2012년부터는 25홈런도 80타점도 넘긴 적이 없다.

이 매체는 지난 시즌 타율 0.277(502타수 139안타) 20홈런 87타점을 기록한 린드를 주전 1루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도 린드의 플레툰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린드가 우완 투수를 상대할 때 타율 0.291(398타수 116안타)을 기록했지만 왼손잡이에게는 0.221(104타수 23안타)로 턱없이 약했기 때문이다.

1루수 백업 후보로는 해수스 몬테로와

스테판 로메로, 가비 산체스, 이대호 등을 꼽았다.

이대호에 대해서는 “34살의 나이에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은 가장 흥미로운 후보”라며 관심을 보였다.

지난 시즌 그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소속으로 141경기에 나와 타율 0.282에 31홈런 98타점을 기록했다면서 “괴물 같은 시즌을 보냈다”고 표현했다.

이대호의 건강장 체격도 관심거리였다. 이 매체는 “그가 얼마나 몸무게를 줄였는지도 관심사다. 지난 시즌 이대호는 폭히 127kg이 넘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 18kg 가까이 감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배우학교’ 장수원, “나는 로봇 아니다” 심경 고백

그룹 ‘젝스키스’ 출신 남성듀오 ‘제이워크’의 장수원(36)이 tvN ‘배우학교’에서 눈물을 흘렸다.

‘배우학교’ 2회에서 ‘로봇연기’ ‘발연기’라고 불린 장수원이 그간의 심경을 털어놓는다.

합숙 둘째날을 맞이해 영화배우 박신양(48)은 스토리칭, 발성법, 사물연기 등 체계적인 연기 수업을 한다. 앞서 자기 소개 시간에 장수원은 “연기 재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며 “자신을 지꾸 억누르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박신양은 1대 1 연기 수업을 통해 그를 변화시켰다. 백승룡 PD는 “장수원은 정말 로봇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실제로 촬영 초반 자기 소개 이후 지체까지 결심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다. 2회에서는 ‘로봇’ 장수원이 감정을 갖게 되는 ‘로봇의 진화’가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칭했다.

/안진수기자



LetsRun FARM 장수 (구.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명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명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Run FARM 장수